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10월 22일(수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9월 중 기존주택매매, 1년래 최대
- 2) 10월 중 소비자신뢰지수 86.4, 7년래 최고치
- 3) 9월 CPI 0.1% 증가, 미연준 초저금리 유지 여유 얻어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일본, 엔저에 부동산 호황,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집중
- 2) 러시아, 우크라이나에 가스대금 지급보증 요구, 유럽 가스대란 우려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IBM, 반도체 사업부 글로벌파운드리에 매각결정
- 2) 웰빙 역풍에 맥도날드·코카콜라 흔들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9월 중 기존주택매매, 1년래 최대

- 지난 21일 전미중개인협회(NAR)는 9월 중 기존주택매매 건수가 전월비 2.4% 증가한 517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
- 이는 시장 전망치 510만건을 상회하는 기록으로, 전문가들은 주택매매건수 증가 요인으로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주택담보 대출 금리, 고용시장 개선 등을 지적
- 한편, 9월 중 기존주택 채고는 6% 증가한 230만채로 집계

2) 10월 중 소비자신뢰지수 86.4, 7년래 최고치

- 지난 17일 톰슨-로이터/미시간대는 10월 중 미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가 86.4를 기록, 전월 84.6보다 상승했다고 발표
 - 이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로, 당초 전문가 예상치는 84.3이었음
- 소비자신뢰지수는 미 경제의 근간인 소비에 대한 선행지표로, 금융위기 전의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는 평균 86.9 수준이었음
 - 이 지수는 2007년 1월 96.9까지 상승하다가 2011년 8월 중 55.8로 하락 한 바 있음

3) 9월 CPI 0.1% 증가, 미연준 초저금리 유지 여유 얻어

- 지난 22일 미국 노동부는 계절조정치를 적용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월대비 0.1% 증가했다고 발표

- 전문가들 지난달 음식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비용도 늘었으나 에너지 비용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에 그친 것으로 분석, 이는 시장 예상치인 0.0%를 상회하는 수치
- o 이에 따라 미연준은 지난 2008년 12월 이래 이어온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 유력시 됨
- o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4분기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일본, 엔저에 부동산 호황,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집중

- o 지난 21일 WSJ은 엔화 약세에 따라 일본 부동산시장이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
 - 최근 매물난에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, 외국인 투자자들은 도쿄, 오사카, 나고야 등 일본 3대 도시 외곽에 부동산 투자를 확대
- o WSJ은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 바람이 부는 것은 일본은행(BOJ)의 공격적인 양적완화에 힘입어 차입 비용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
 - 특히 지방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
 - 또한 저금리 기조에 일본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에 투자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

2) 러시아, 우크라이나에 가스대금 지급보증 요구, 유럽 가스대란 우려

- 지난 21일 FT는 러시아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스대금 지급보증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5일 안에 제시하도록 요구, 이에따라 유럽에서 다시 가스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
 - 러시아는 국제통화기금(IMF), 유럽투자은행(EIB) 같은 국제기관이나 '일류(first-class) 은행' 등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만 인정하겠다는 입장
- 전문가들은 유럽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중 30%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왔으며, 이 가운데 절반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수입, 러시아가 올 겨울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유럽도 가스분량을 확보하는데 우려가 확산 될 것이라고 분석
 - 한편, 러시아는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으며, 이는 2년여 동안 이어진 공급가격 다툼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것이 배경이 된 바 있음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다음 협상은 이번 달 29일에 열릴 것이며,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IBM, 반도체 사업부 글로벌파운드리에 매각결정

- 지난 20일 IBM은 반도체 사업부를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(위탁생산) 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에 15억달러에 달하는 웃돈을 얹어 매각한다고 발표

- 반도체 사업부 매각조건으로 2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인수, 실제 제공할 현금은 13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
- o 이는 IBM이 금년 상반기에 처음 글로벌파운드리측에 제시했던 액수보다 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, 당초 글로벌파운드리는 IBM 반도체 사업부의 손실 등을 감안해 20억달러를 요구한 바 있음
- o 이번에 매각되는 IBM의 반도체 사업부는 한 해 15억달러의 손실을 발생, IBM은 인텔에 밀려 시장내 지위가 크게 약화된 상태

2) 웰빙 역풍에 맥도날드·코카콜라 흔들

- o 지난 21일 블룸버그통신은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'웰빙' 역풍에 실망스런 3/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도
- o 맥도날드의 3/4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0% 감소한 10억7,000만달러를 기록
 -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.6% 감소한 69억9,000만달러로 집계, 전문가들의 예상치 71억9,000만달러를 하회
- o '안방' 시장인 미국 매출도 전년동기대비 3.3% 감소
 - 전문가들은 신메뉴들을 앞세운 패스트푸드업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웰빙 바람까지 불면서 맥도날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
- o 또한 중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사용했다는 파문이 확산되면서 아시아 지역 매출도 9.9%감소